

2017년 1학기
글쓰기
보고서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60162802 안세영

담당교수명 : 김현양 교수님
제출일 : 2017년 5월 29일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I 서론 : 현재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 방식
1. 대학 기숙사의 정의
2. 명지대학교 기숙사의 목적, 운영방식
II :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
1. 선발기준의 불평등 문제
2. 낙후된 시설의 문제
3. 기숙사 내의 보안문제
4. 필수로 구매해야하는 식권문제
III :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
1. 동등한 기숙사 지원을 위한 선발기준 평등화
2. 낙후된 시설 보완공사와 추가 건축
3. 보안 점검과 사생들의 노력, 식권판매 방식개선
4. 기숙사 정기적 설문조사 실시
IV 결론 :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 개선의 필요성 강조
[참고문헌]
부록

I. 서론

대학기숙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에 속하여 있는 시설이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적인 목적을 지니고 숙식을 제공하는 공동거주체계를 의미하며, 가정과 학교의 중간적인 성격으로 주거와 학습을 겸비한 공간을 말한다. 또한 거주기간이 한정된 주거형태로서 대학재학 시에만 이용 가능한 특수한 교육적 주거시설의 종합이다.¹⁾

명지대학교의 기숙사 또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거주 시설이다. 명지대학교는 기숙사가 명지학원의 설립정신²⁾을 구현하고, 대학이념³⁾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과 섬김의 장소로서의 역할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다.⁴⁾

1) An architectural Record Book, Apartment and Dormitories, McGraw Hill Book Co. pp177~178

2) 명지대 설립정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 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문화와 국민 경제 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 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3) 명지대학교 대학이념: 기독교의 사랑으로 교육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지식과 지혜를 밝혀 가르친다.

4) 명지대학교 교육목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올바른 활용방법을 연구 교수하며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 봉사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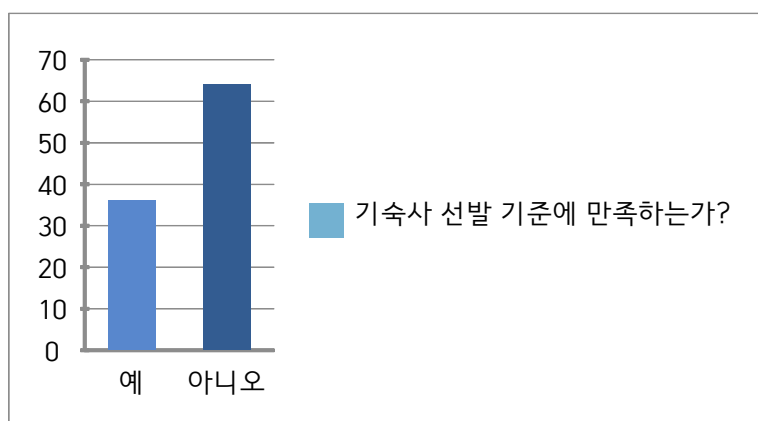
현재 기숙사 건물은 3동(남학생), 4동(여학생 2인실), 5동(여학생 4인실), 명덕관(남학생), 명현관(대학원생 기숙사) 5개이다. 현재 기숙사의 수용 가능 인원은 여학생이 588명, 남학생 792명, 대학원생 116명으로 총 1868명이다.⁵⁾ 기숙사에서 생활 하게 될 학생들을 뽑는 기준은 선발기준에 맞춰 뽑게 되는데 현재 기숙사의 선발기준에는 거리점수와 성적이 있다. 지역의 거리가 멀수록 점수를 크게 두어 멀리 사는 학생들에게는 점수를 더 주는 방식이다. A(0점)는 용인 전 지역이며, B(0.05점)는 수원, 성남, 서울 등이 있으며 C(0.1점)에는 인천,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하남 등이 있고 D(0.15점)에는 평택, 안성, 여주 등 E(0.2점)에는 가평, 남양주, 고양, 김포, 의정부 등 F(0.25점)에는 포천,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북 등으로 나뉘어 지역 별로 점수가 주어진다. ⁶⁾ 선발기준의 성적은 매년 달라지지만 2017년 1학기 통계에 의하면 명덕관(남학생)은 3.25, 3동(남학생) 2인실은 3.93, 3동 4인실은 1.39, 4동(여학생) 3.8, 5동은 3.72로 최종 커트라인 점수로 통계되었다.⁷⁾ 이렇게 기숙사는 운영이 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지대학교 기숙사에서 다양한 문제점들과 불편한 점들이 사생들의 의견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그에 대해 학교 측의 개선 방안과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안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며, 마지막 IV장에서는 이러한 명지대학교 기숙사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자 한다.

II. 명지대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

1. 선발기준의 불평등 및 타 학교의 선발기준

기숙사는 대학교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이다. 명지 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에 나온 기숙사 신청 인원은 총 2770명으로 기숙사 입소를 원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공평한 선발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1) 기숙사 선발기준 만족도 조사

5) 명지대학교생활관홈페이지“기숙사 동별 수용 가능인원”, <http://dorm.mju.ac.kr/>, (최종검색일 2017. 5.19.)

6) 유병진, 「명지대학교2017년도대학생활성공가이드」, 명지대방목기초교육대학, 2017

7) 명지대학교생활관홈페이지“기숙사 최종커트라인”, <http://dorm.mju.ac.kr/>, (최종검색일 2017. 5.19.)

하지만 기숙사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한 결과 36명의 학생들만이 현재 선발기준에 '만족 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나머지 64명의 학생들은 현재 선발기준에 대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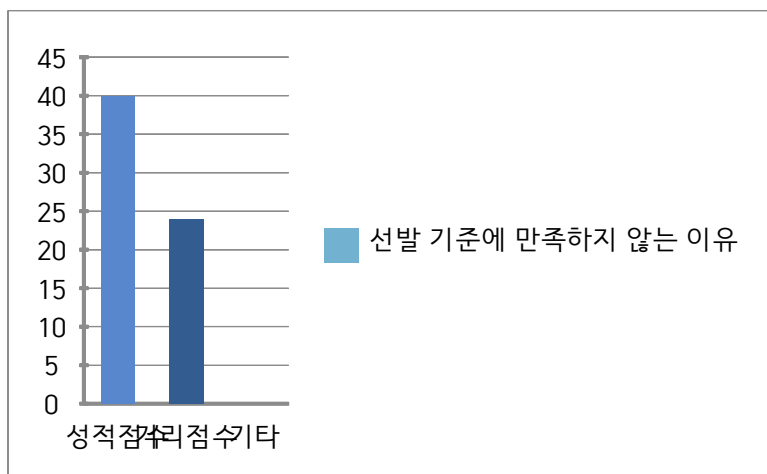
현재 명지대학교 기숙사의 선발기준⁸⁾은 다음과 같다.

- 장애학생,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 성적+지역점수 순위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 우선)

등급 및 점수	지역
A(0점)	용인 전 지역
B(0.05점)	수원, 성남, 서울(강남, 서초, 송파, 관악, 동작, 영등포, 금천, 구로)
C(0.1점)	인천, 부천, 이천, 광주(경기), 광명, 안산, 과천, 시흥, 안양, 군포, 의왕, 오산, 하남, 서울(양천, 강서, 강동,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중구, 서대문, 종로, 동대문)
D(0.15점)	평택, 안성, 화성, 여주, 양평, 서울(은평, 성북, 중랑, 강북, 노원, 도봉)
E(0.2점)	가평, 남양주, 양주, 고양, 김포, 구리, 의정부
F(0.25점)	연천, 포천, 강화, 파주, 동두천,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 강원, 제주

(표 1) 지역점수표

- 재학생 50%, 신입생 40%, 복학/편입생 10% 선발



(그림 2) 선발기준 불만족 이유 조사

위의 선발기준에서 학생들의 불만은 크게 성적점수에 대한 불만과 거리점수에 대한 불만으로 구분된다. (그림 2)에서 64명의 학생 중 40명은 성적점수에 대해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표적으로 성적점수에 대한 불만들은

- 점수(컷라인)이 너무 높고 부담스럽다. : 27명 (남자 1명, 여자 6명 응답) <1위>
- 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8) 유병진, 「명지대학교2017년도대학생활성공가이드」, 명지대방목기초교육대학, 2017.

- 멀리 사는 학우들에게 더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거리 점수의 비중이 더 컸으면 좋겠다.
- 등으로 성적점수보다 거리점수의 비중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 한편 64명 중 24명은 거리점수에 대해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대표적인 거리점수에 대한 불만들은 이러하다.
- 실제 통학거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계산하는 것이 불공정하다.
 - 실제 통학거리 및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만 보는 것이 불공평 하다.
 - 거리 점수 비율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
 - 기숙사를 희망하는 여대생에 비해 여자 기숙사 수용인원이 남자 기숙사보다 턱없이 적다. : 13 명 <2위>

등으로 (표 1)의 지역점수표가 실제 교통거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기준의 필요성과 여학생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남학생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선발기준의 문제는 명지대학교에만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타학교(단국대, 가천대, 아주대)의 선발기준을 조사하였다.

●단국대⁹⁾

가)수도권은 성적순으로 비수도권은 거리점수(30%) 및 성적점수(70%)순으로 선발한다.

나)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발시 우선권을 줄 수 있다.

- 1.기초수급 대상자
- 2.장애학생 및 장애도우미학생
- 3.국가유공자 자녀(본인포함)
- 4.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 (단원 장학생, 나노바이오 대학원생, 외국인학생 등)

●가천대¹⁰⁾

가)통학거리, 성적, RC활동계획서 등을 고려한 평가 방식을 따름.

나)신입생 : 통학거리+RC활동계획서

다)재학생 : 통학거리50%+직전학기성적50%+RC활동계획서±생활관 생활점수

●아주대¹¹⁾

가) 전 학년도 2학기 또는 동·하계 방학에 입사하였던 자는 성적60%, 사생기록부30%, 사회봉사활동10%를 반영한다.

나) 신규입사 지원자는 성적 60%, 지역조건 30%, 사회봉사활동 10%를 반영한다.

위 학교들의 선발기준의 기본적인 틀은 명지대의 선발기준의 방식과 비슷하다. 하지만 단국대는 수도권 학생들은 성적점수만 반영하는 반면 비수도권 학생들은 성적점수30% 거리점수 70% 비율로 반영하여 선발기준의 공정성을 더하였다. 또한 가천대는 RC활동계획서¹²⁾라는 기

9) 단국대 생활관<http://domi.dankook.ac.kr/?intro=1>.

10) 가천대 생활관<http://www.dasomkw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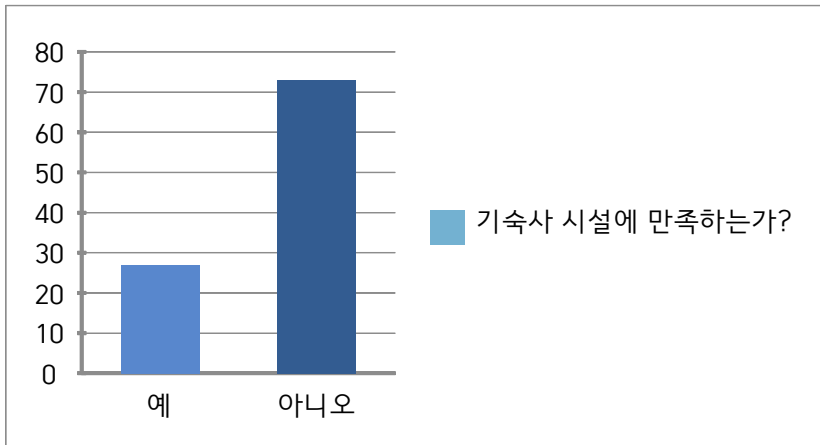
11) 아주대 생활관<http://dorm.ajou.ac.kr/dorm/>.

12) 학생들에게 단순한 거주공간인 기숙사를 다양한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간의 학습활동과 방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한 통합형 교육을 통해 기숙사 생활의 도움을 주고자 기숙사내에 하우스라는 하위 개념의 생활 공동체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유대감과 특색 있는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존의 타 대학들과는 달리 차별화된 기준을 포함하며 아주대 역시 재학생에 한하여 거리점수 대신 사생기록부와 사회봉사활동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선발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명지대 역시 학생 대다수가 현재 선발기준에 불만족 하는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선발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

2. 낙후된 시설의 문제

선발기준의 공정성만큼 기숙사의 시설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그림 3〕 기숙사 시설 만족도 조사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명의 학생들이 현재 시설에 ‘만족 한다’라고 응답하였고 73명의 학생들이 ‘불만족 한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시설에 ‘불만족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만족 하는 이유를 조사 하였는데 그에 대한 응답들은 다음과 같다.

- 벌레가 너무 많다 : 23명 <공동 2위>
- 공용화장실이어서 불편하다 / 열악하다 / 위생적이지 않다 : 23명 <공동 2위>
- 샤워실이 매우 열악하다 / 덥다 / 사람 수에 비해 샤워부스가 부족하다 : 42명 <1위>
- 건물이 너무 낡았다 : 7명
- 방이 인원에 비해 너무 좁다 : 15명
- 창문이 열리지 않아 환기 문제: 5명
- 방음이 잘 되지 않는다. : 8명



〔사진 1〕 기숙사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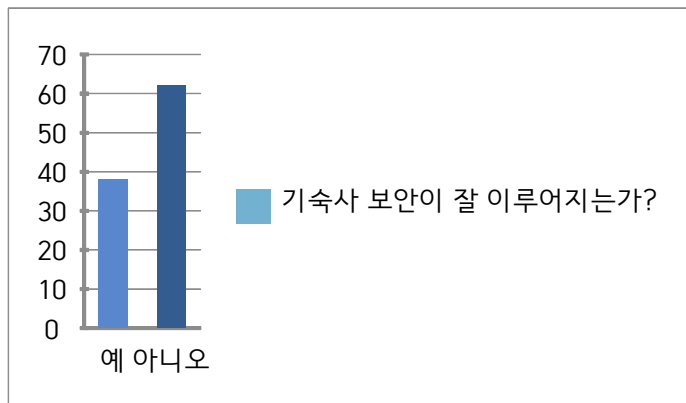
〔사진 2〕기숙사 샤워실

실제 기숙사의 수용인원이 1868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진 1〕과 〔사진 2〕의 시설은 매

우 열약하다. 따라서 기숙사의 리모델링 혹은 노후 시설 교체와 같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3. 기숙사 내외 보안문제

대학교 기숙사의 보안이 허술하여 많은 사건사고가 들끓고 있고,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명지대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 역시 기숙사의 보안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기숙사 보안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래 차트는 그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4) 명지대 기숙사 보안 만족도 조사

(그림 4)에서 보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38명의 학생들 즉 38%의 학생들이 '예'라고 답변하였고 총 62명 즉 62%의 학생들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과반수 이상이 기숙사 보안문제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기숙사의 보안문제의 이유로 '방법창의 부재', '통금시간 문제'와 '도난사고의 증가'를 꼽고 있다.

첫째로 방법창의 부재문제이다. 최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휴기를 든 2-3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기숙사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던 여학생을 위협한 사건¹³⁾이 발생했다. 이 기숙사에는 방법창이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방충망이 훼손된 점에 미뤄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다고 기술되어있다.¹⁴⁾ 현재, 명지대학교 기숙사의 창문은 안전성의 문제로 열리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방법창이 설치되어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사건으로 많은 명지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이 증폭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창문은 언제라도 쉽게 깨뜨릴 수 있으며, 열리지 않는 창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창문을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둘째로 통금시간의 문제이다. 현재 명지대학교 기숙사 건물에 출입이 불가능한 시간은 0시부터 5시이다. 이 시간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 새벽에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허다하다. 많은 학생들이 통금시간을 늘리는 것 또는 폐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신입생인 김모씨(19·여)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얼마 전 친구와의 약속이 끝나고

13) 신재웅, "휴기를 든 괴한 중앙대 안성캠퍼스 여학생 기숙사 침입",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06506_21408.html, (2017.5.19.최종검색).

14) 위의 글.

15) 명지대학교 기숙사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에서의 '기숙사 보안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다.

부랴부랴 기숙사 통금 시간에 맞춰 달려갔지만 결국 기숙사 문이 닫혔다. 할 수 없이 밤을 새기 위해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 가는데 뒤에서 낯선 남자가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아는 사람을 만나 위기를 모면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김씨는 "기숙사 밖에서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밝혔다.¹⁶⁾

위 사례와 같이 타 대학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명지대 사생들 역시 0시 통금시간을 놓쳐 새벽에 밖에서 대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을 목표로 한 통금시간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한편 통금시간 폐지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신입생 전모씨(19·여)는 "통금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규제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너무 풀어질 것 같다"라고 했다.¹⁷⁾

휴식을 취하거나 부족한 공부를 하는 공간인 기숙사에서 늦은 밤과 새벽, 사생들의 소란스러움을 누가 달가워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사생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기숙사 생활을 위해 통금시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증가하는 도난사고 문제이다.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는 각종 메이커 트레이닝복, 티셔츠와 바지, 속옷과 양말, 클렌징폼과 치약 따위의 세면용품들까지 도난을 당했다며 학생들이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하였다.¹⁸⁾ 이 도난사고는 부산의 한 대학의 기숙사뿐 만이 아니라, 명지대학교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그 횟수가 점점 증가하기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들은 도난사고의 원인으로 충분치 못한 CCTV의 개수, 동일한 종류의 키로 열 수 있는 4동과 5동을 꼽고 있다. 현재 명지대학교 기숙사 CCTV의 현황은 5동을 기준으로, 1층과 엘리베이터 내부에만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CCTV의 부족으로 기숙사 이용 학생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4동과 5동은 출입할 때 쓰이는 열쇠가 동일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 자신이 사용하는 기숙사 건물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난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임을 다시금 알 수 있다. 도난사고는 곧 학생들의 안전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보아 현재 명지대학교 기숙사는 학생들이 마치 자신의 집처럼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기숙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전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위해선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4. 필수로 구매해야하는 식권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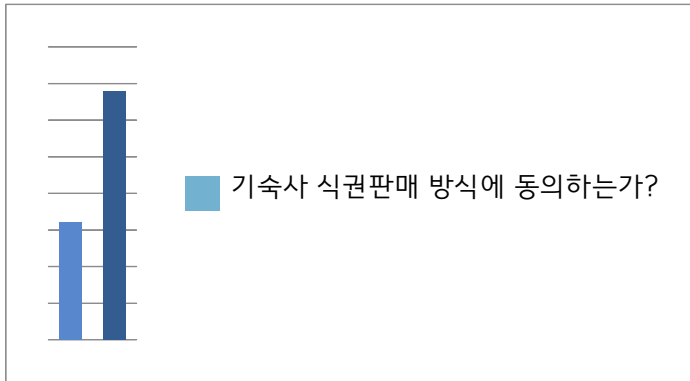
현재 명지대학교 기숙사는 기숙사 생활비에 식권비를 포함하여 식권구매(20식, 40식 중 택1)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은 이 방식이 강제성이

16) 윤수희·김태현, "대학 기숙사 통금' 꼭 필요한가요? 일부 대학 폐지 추진", <http://news1.kr/articles/?2661890>, (2017.5.27.최종검색).

17) 같은 곳.

18) 민소영, "팬티·양말에 치약까지...대학가 좀도둑 '활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106000154>, (2017.5.27.최종 검색).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명지대학교 기숙사의 식권판매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식권판매 방식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기숙사 식권판매 방식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 그림이 그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5)기숙사 식권 판매에 대한 설문조사

<표1> 국립대학 기숙사 의무식 운영 현황 - 대학별 (2014년 1학기 기준)

(단위 : 대학, %)

구분	대학수	비율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	14	46.7
의무식 / 선택식 등 혼용 대학	11	36.7
모든 기숙사를 선택식으로 운영하는 대학	4	13.3
기타	1	3.3
계	30	100.0

주) 기타 : 한국체육대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전액 국고지원)

(표 2) 국립대학 기숙사 의무식 운영 현황-대학별

(그림 5)을 보면 현재 명지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¹⁹⁾ 결과, 32명 즉 학생들의 32%가 ‘네(동의한다)’라고 답변하였고, 68명 즉 68%의 학생들이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현재 명지대학교 기숙사의 식권판매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로 보아 식권판매 역시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명지대학교 기숙사 식당은 아침식사의 경우, 신관은 8시~9시 30분, 명덕관은 7시 30분~9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신관에서 8~9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점심의 경우 12시~13시까지 이용가능하고, 저녁의 경우 신관은 17시부터 19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8시~19시에 이용가능하다.²⁰⁾ 평균적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가능한 시간은 1시간 30분 남짓이다. 특히 점심시간의 경우, 겨우 1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1학기에 주어진 기숙사 식권은 1학기에만 유효하며²¹⁾ 환불 역시 불가능하다.²²⁾ 1학기에 배부 받은 식권을 학기 내 사용하지

19) 명지대학교 기숙사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에서의 ‘기숙사의 식권판매 방식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다.

20) 명지대학교, “편의시설 현황/둘러보기”(최종검색 2017.5.19.).

21) 명지대학교 활관 관리자, “돈 납부와 식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 <http://kafkago.tistory.com/515>, (최종검색 2017.5.19).

못하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남아도는 식권은 학생들에게 있어 골칫거리에 불과하다.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 만족도 조사'의 결과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이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자주 있고, 그로 인해 식권을 쓰지 못할 때가 많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기숙사 식당 아용가능 시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숙사 식당 이용자체를 원치 않는 학생들과 20식, 40식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대학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한 바,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점에 해당한다. (표2)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법적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30개의 국립대학 중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46.7%로 가장 높고, 의무식/선택식 등 혼용대학은 36.7%, 모든 기숙사를 선택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13.3%에 그치는 결과가 나왔다.²³⁾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은 왜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인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학교 측의 해명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외부 업자에게 식당 운영을 맡겼는데 적정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대학은 아직까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을 늘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게 대학의 책무라고요. 그렇지 않죠. 대학은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을 '상아탑'으로 불렀습니다. 대학은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기숙사비 문제는 물론 등록금이나 전형료 문제까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기숙사 식권까지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더니... 정말 씁쓸합니다.²⁴⁾

기숙사 의무식 제도에 대한 학교의 해명이다. 적정 수입을 보장하기 위함, 그것이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박정호 기자의 말처럼 대학은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곳이다. 그런 목적을 가진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Ⅲ. 명지대 기숙사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

1. 동등한 기숙사 지원을 위한 선발기준 평등화

앞서 II-1.에서 제시했듯이 선발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현재 선발기준의 지역 점수표가 실제 교통거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기숙사의 여학생 수용인원이 남학생에 비하여 적다는 점, 여자 기숙사의 성적 커트라인이 높다는 점이다.

22) 명지대학교 생활관 관리자, "re" 식권 환불", <http://kafkago.tistory.com/515>, (2017.5.28. 최종검색).

23) 대학교육연구소, "국립대 기숙사 3곳 중 1곳 여전히 1일 3식 의무", <http://khei-khei.tistory.com/981>, (최종검색 2017.5.19).

24) 박정호, "기숙사 식권 구입 의무화, 골병드는 대학생", <http://kafkago.tistory.com/515>, (최종검색 2017.5.19).

	인원 수
여학생 수용 가능 인원	588명
남학생 수용 가능 인원	792명
대학원생 수용 가능 인원	116명
기숙사 총 수용 가능 인원	1868명

[표 3] 명지대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²⁵⁾

실제 기숙사 남녀 수용 가능 인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남자 수용 인원이 여자 수용 인원보다 204명이 더 많다.

	1인실	2인실	계	수용인원(명)
남	3	217	220	437
여	3	319	322	641
계	6	536	542	1,078

[표 4] 단국대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²⁶⁾

	여학생		남학생		계	
	호실 수	인원	호실 수	인원	호실 수	인원
1인실	8	8	2	2	10	10
2인실	17	34	18	36	35	70
3인실	31	93	20	60	51	153
4인실	53	212	35	140	88	352
계	109	347	75	238	184	585

[표 5] 가천대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²⁷⁾

	남학생		여학생		수용인원(명)
	실	인원(명)	실	인원(명)	
장애우실	2	4	2	4	8
2인실	24	46	52	104	152
3인실	56	168	88	264	432
4인실	48	192	73	292	484
계	130	412	215	664	1,076

[표 6] 가톨릭대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²⁸⁾

이는 타 학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남자 수용인원 대비 여자 수용인원이 명지대학교가 월등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숙사 남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남자 기숙사는 수용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여 남는 방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수용가능 인원의 불균형 때문에 여자 기숙사의 최종 커트라인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25) 명지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http://dorm.mju.ac.kr/>. (최종검색 2017.5.19.)

26) 단국대 생활관 <http://domi.dankook.ac.kr/?intro=1>. (최종검색 2017.5.19.)

27) 가천대 생활관 <http://www.dasomkwon.net/>. (최종검색 2017.5.19.)

28) 가톨릭대 기숙사 <http://www.catholic.ac.kr/~i-house/>. (최종검색 2017.5.19.)

관	성적+거리점수 최종 커트라인
명덕관 (남학생)	3.25
3동 2인실 (남학생)	3.93
3동 4인실 (남학생)	1.39
4동 (여학생)	3.8
5동 (여학생)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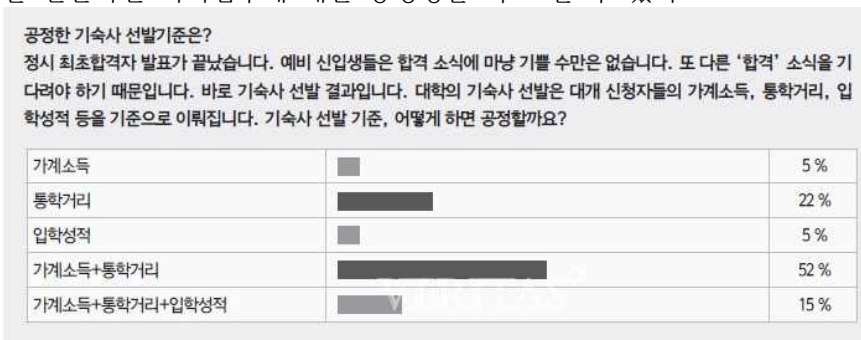
〔표 7〕 기숙사 최종 커트라인²⁹⁾

〔표 7〕을 보면 3동 2인실 (남학생)을 제외한 모든 남학생 관이 여학생의 관보다 커트라인이 월등히 낮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해결 방안으로는 남는 남학생 기숙사를 여학생 기숙사로 전환시키거나 새로운 여학생 기숙사를 신축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숙사를 새로 신축하는 해결 방안은

대학 기숙사가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는 기숙사 관리비 수납 이외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대학 본부의 지원 내역은 아주 열악하다. 기숙사의 재정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 대부분의 대학 기숙사는 본부의 학생처 또는 후생복지과 산하에 속해 있다. 이것은 대학 기숙사가 독립된 운영 단체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 본부의 각종 지원에 기숙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다.³⁰⁾

위의 글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우선은 남는 남학생의 기숙사를 여학생의 기숙사로 전환하고 차후에 지원을 받아 재정을 확보하여 여학생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들 수 있다. 한편 거리점수에 대한 문제는 학교의 지역점수표가 단순히 지역 간의 직선거리만을 계산하여 작성된 표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간의 거리가 아닌 실제 학교 통학의 거리, 시간, 교통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역점수표를 만든다면 거리점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그림 6〕 공정한 선발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³¹⁾

29) 명지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http://dorm.mju.ac.kr/>. (최종검색 2017.5.19.)

30) 백남섭,「대학기숙사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학생생활연구』4권,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96,p13.

31) 김민철,“기숙사선발기준, 어떻게 하면 공정할까요?”,<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129>,(최종검색 2017.5.19.)

또한 (그림 6)를 통해 전국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공정한 선발기준은 가계소득과 통학거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대로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지역접수표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선발기준에 포함시킨다면 더욱 형평성 있는 선발기준을 만들 수 있다.

2. 낙후된 시설 보완공사와 추가 건축

기숙사의 낙후된 시설은 '5월15일자 생활관 리모델링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지³²⁾와 함께 보완공사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하지만 리모델링으로 인한 생활관의 비용이 15~20%가 오른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겼다. 생활관의 리모델링은 명지대학교만의 문제인 것 인지 생활관 리모델링을 한 다른 학교들을 찾아보았다

호산대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생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숙사(정암학사)를 증축함과 동시에 기존 기숙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호산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경산시가 출연한 향도생활관 건립 자금 2억 원을 포함해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호산대는 기존의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것 외에
1개 층을 증축해서 수용인원을 130명 추가함으로써
현재 380명에서 총 수용인원은 5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기숙사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학생들이 호텔 못지않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산대 기숙사(정암학사)에는 남녀 기숙사 동별로
각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내부설비로는 최신 냉·난방시설을 비롯해
자율학습실, 컴퓨터실, 휴게실, 세탁실, 다목적실 및 로비 등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각 층의 홀을 편의공간으로 변경해
독서, 세미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안락한 시설에서 편안하게 학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림 7) 호산대학교 네이버 공식 블로그 글³³⁾

위덕대 기숙사 리모델링

작성자 **기획홍보팀** 12-11-13 16:36 조회 5,728회 댓글 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위덕대학교 기숙사, 호텔 부럽지 않아요.
위덕대학교 학생 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기숙사 리모델링 시작

위덕대학교(총장 서남수)가 학생 복지의 일환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숙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9월 취임한 서남수총장은 대학의 중심인 학생들을 위한 첫 번째 복지사업으로 기숙사 리모델링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10월 한달여 기간에 걸쳐 남학생 기숙사인 선우관 5층, 10개의 호실 리뉴얼공사를 시행하여 지난 11월 12일, 새단장된 기숙사 Opening event를 시작하였다. 4인실(현재배치형) 2실, 4인실(일체형) 4실, 3인실 4실을 새단장하였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위기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밝은 색상으로 도장하였으며, 복도조명 및 벽체 등을 교체하였다.

또한 침대, 책상, 의자, 옷장 등의 교체는 물론 실내부를 친환경 등기구로 교체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학습 효과 증진 및 심리적으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층의 홀을 편의공간으로 변경하여 관생들의 독서, 세미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안락한 시설에서 편히 학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기숙사 리뉴얼공사는 홍보기간(11월 12일 ~ 16일)을 통하여 선호도조사 및 문제점 접수 후 최종 가구유형, 실배치(3인실 수용조사)를 판단하여, 동계방학 중 전체 기숙사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론보도 : 뉴시스(12.11.14), 대구신문(12.11.14), 경북일보(12.11.14), 경북매일(12.11.14), 대경일보(12.11.14), 서라벌신문(12.11.19), 밀교신문(12.11.15)

32) 자연생활관 리모델링 설명회 개최 안내, <http://dorm.mju.ac.kr/> (최종검색 2017.5.19.)

33) 호산대학교 네이버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hhhb36/220867450450> (최종검색 2017.5.19.)

(그림 8) 위덕대학교 홈페이지 기숙사 리모델링 안내 공지 글 34)

안동과학대학은 2011학년도 1학기 개학 및 입학식에 발맞추어 **기숙사 2개동(인간관, 과학관)을 4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호실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천정형 냉난방기를 전부 설치**하였으며, **침대 및 가구를 전면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자동 출입 장치, 장애인실 등 편의시설도 대폭적으로 리모델링 하여 최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거리상 도서관에서 떨어져있는 기숙사 학생들을 위하여 **후생관(식당) 3층에는 별도의 독서실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숙사를 좀 더 증축하여 **2인 1실**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후생관(식당)도 위생적**이며 학생들의 영양과 입맛에 맞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9)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리모델링 안내 글³⁵⁾

3개의 학교모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생활관 리모델링 하였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추가 금액 인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각 학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리모델링 전 후의 생활관 입사 금액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오래된 자료이고 아예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2017년 1학기 입사 금액을 올린다.

구 분	기숙사비	식비	총 납부금액	비 고
일반(4인1실)	380,000원	210,000원	590,000원	
일반(3인1실)	430,000원	210,000원	640,000원	
장학생(4인1실)	/	210,000원	210,000원	

(표 8) 2017년 1학기 호산대학교 기숙사비 ³⁶⁾

2. 입주비(1학기동안) :

- 4인실 : 490,000원, - 3인실 : 597,000원

- 위 금액에는 보증금 3만원(정상 퇴관시 환불), 단체결핵검사비 3천원, 자치회비4천원 포함한 금액이다.

34) 위덕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uu.ac.kr/bbs/board.php?bo_table=05_02_01&wr_id=306
(최종검색 2017.5.19.)

35)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asc.ac.kr/bbs/skin/gal/bor1/bbs_view.jsp?b_idx=14723&board_id=main_11 (최종검색 2017.5.19.)

36)호산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osan.ac.kr/front/board/view.php?code=notice&sch_string=%EA%B8%B0%EC%88%99%EC%82%AC&no=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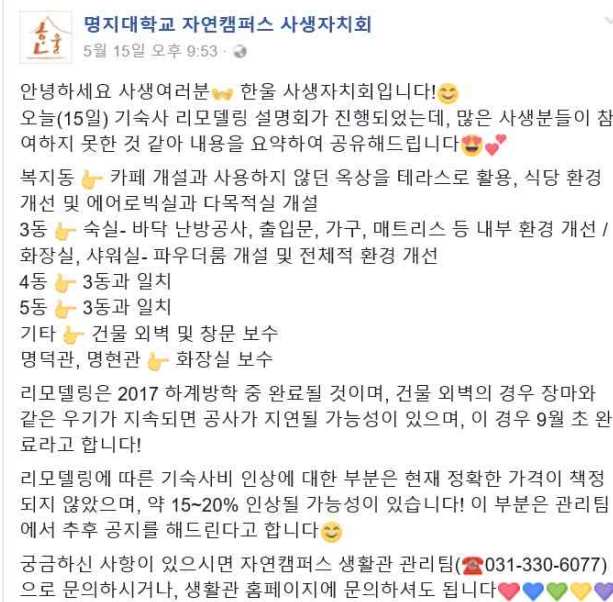
(최종검색 2017.5.19.)

구분	안동과학대학교	A대학	B대학	C대학	지역자취방시세
기숙사비 (한학기 기준)	4인1실 : 68만원 (1일 3식)	4인 : 83만원 (1일 2식)	3인 : 87만원 (식사:주5일 제공)	4인 : 76만원 (1일 3식)	150~200만원 (통상 10개월계약식비, 난방연료비 별도)

[표 9] 2017년 1학기 안동과학대학교 기숙사비 37)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금액 상승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3개학교 모두 리모델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지대학교의 기숙사비보다 저렴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숙사비 금액 인상이 정당한가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숙사비와 학교예산액을 생각한다면 상승이 있었어도 매우 조금이었거나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0]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사생자치회 공식 페이스북 글 38)

[그림 10]과 같이 이미 생활관 3,4,5동은 리모델링 준비가 끝난 상태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이란 것은 추가 건축이 아니다. 사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샤워부스 부족, 공용화장실의 문제, 인원에 비해 방이 비좁다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생활관 리모델링으로 인해 생긴 비용은 현재 정확하게 정해져 공지된 바 없지만, 약 15~20%가량 영구적으로 인상되고 3,4,5동의 사생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비용 상승에 대해 학교에서는 생활관 지원금을 사용하여 사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리모델링에 적극적 후원이 있어야 한다.

37)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asc.ac.kr/> (최종검색 2017.5.19.)

38)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ue2016/?fref=ts> (최종검색 2017.5.19.)

3. 보안 점검과 사생들의 노력, 식권판매 방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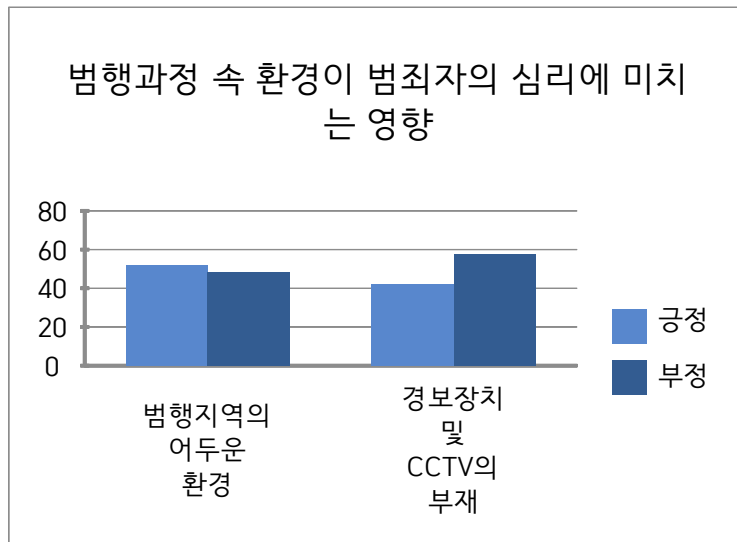
3-1) 보안 점검과 사생들의 노력

현재, 명지대학교 기숙사는 방범창이 없는 열리지 않는 창문, 담벼락의 부재, 1층과 엘리베이터에만 설치되어있는 CCTV,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출입열쇠, 통금시간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보안책의 전부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엔 다소 미흡해 보인다. 실제로도 이러한 기숙사 보안책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높았다. 범죄예방책 강화가 필요하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모든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해야한다. 현재 명지대학교의 창문은 안전성을 문제로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방범창의 존재만큼 안전치 못하다.

창문 바깥쪽에 촘촘한 철창을 덧댄 방범창은 성범죄자들에게 ‘혹시 뜯어내는 것을 누가 보지는 않을까’ 하는 초조함을 안겨 미리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 범죄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 이상 뚫리지 않으면 75%, 5분이 넘어가면 90% 이상이 범행을 포기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³⁹⁾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뚫리는 데 5분 이상이 소요되는 튼튼한 방범창의 경우, 90% 까지 범죄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명지대학교 기숙사는 열리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창문을 열리도록 하되, 튼튼한 방범창을 설치하여 범죄에 예방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방범창의 효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물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하여 방범창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건물 안쪽으로 설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범행과정 속의 환경이 범죄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위 [그림 11]를 보면, 범행과정 속의 환경이 범죄자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범행지역이 어두울 경우 범죄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은 52.0%, 부정적인 답변은 48%에 미쳤다. 경보장치 및 CCTV의 부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 57.8%, 부정적인 답변을 한 범죄자는 42.2%였다.⁴⁰⁾

39) 최승태, “방범창 설치가 성범죄 막는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02443> (최종검색 2017.5.19.)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둘째, 기숙사 건물 근처 환경의 밝기를 높여야 한다. 빛은 사람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고, 조명 지역과 비조명지역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 설치가 중요하며, 높은 전력의 소수의 조명보다는 낮은 전력의 다수의 조명이 바람직하다⁴¹⁾는 한 연구보고서에 따라, 기숙사 건물이 있는 장소에 낮은 전력의 다수의 조명을 설치하여 범죄에 예방해야할 것이다.

셋째, CCTV를 각층 복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해야한다. 요즈음은 창문을 타고 올라가 침입하여 범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점에서 1층과 엘리베이터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범행방법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CCTV의 추가 설치는 사생들 간의 도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사생들이 보다 더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하기 위해선, 현재 다소 미흡한 명지대학교 기숙사의 보안문제를 다음과 같은 보안장치 설치를 통해 보안해야할 것이다.

현재 명지대학교 사생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생들이 통금시간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생들의 안전을 목표로 한 통금시간이 오히려 사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통금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소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안전성의 문제와 사생활 보호(숙면 등)에 생길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이러한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이겠다.

기숙사 건물 자체의 출입은 허가하되, 엘리베이터의 전력은 경비원의 통제 하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계단의 출입 역시 통제한다. 기숙사 내에 있는 학생들이 급한 사정으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린 후 함께 이동하도록 한다. 이렇게 통제하고, 통금시간이 지나 기숙사 건물로 들어온 학생들은 1층에 구비되어 있는 휴게실에서 대기시킨다면, 늦은 새벽 통금시간이 지나 기숙사 건물의 출입이 가능한 5시 30분까지 밖에서 대기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면 통금시간이 원인이 되는 위험성은 감소시키면서 기숙사 건물 내에 있는 사생들의 사생활과 안전성 역시 보장될 것이다. 통금시간 내에 경비원을 한 분 더 배치시키는 것은 물론 사생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비원 한 분당 사생들이 부담되는 금액은 1인당 약 1천원으로, 사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⁴²⁾

사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도난사고는 앞서 말한 CCTV의 설치로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생들이 문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명지대학교 학생 안모씨(21)의 제보를 보아, 기숙사 내 도난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으로 사생들 스스로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생들과 학부모들의 기숙사 보안문제에 대한 근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측 보안 시설 확대 지원 역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생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언제까지 자신의 안전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기에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0) 신의기 외 5명,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p2.

41) 위의 글, 7쪽.

42) 구메진, "기숙사 통금,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문제로다", <http://goham20.tistory.com/2891>, (최종검색 2017.5.19.)

3-2. 식권판매 방식 개선

식권판매 방식 역시, 명지대학교 사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타 대학들의 사생들의 근심거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법적으로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6.7%의 국립대학의 기숙사들이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 명지대학교도 이와 같이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⁴³⁾ 아래 [그림12]은 명지대학교가 의무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근거자료이다.

※ 한 학기(3.5개월) 기준(선택식: 쿨40식 또는 쿨20식)/ 단위: 원

구분	장원	호실면적	생활관비	지원자격	통제시간
명현관	92	2인 1실	1,245,000 (쿨40식) 또는 1,091,000 (쿨20식)	대학원 [남/여학생] - 대학원생	24시간 개방
	24	1인 1실			
명덕관	636	4인 1실	953,000 (쿨40식) 또는 799,000 (쿨20식)	학부 전학년 [남학생]	24:00
3동	96	2인 1실	1,245,000 (쿨40식) 또는 1,091,000 (쿨20식)	학부 전학년 [남학생]	
	372	4인 1실	953,000 (쿨40식) 또는 799,000 (쿨20식)		
4동	196	2인 1실	1,245,000 (쿨40식) 또는 1,091,000 (쿨20식)	학부 전학년 [여학생]	
5동	392	4인 1실	953,000 (쿨40식) 또는 799,000 (쿨20식)	학부 전학년 [여학생]	

[그림 12]명지대학교 기숙사 의무식 자료

II-4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기숙사 식당은 굉장히 짧은 시간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짧은 운영시간으로 식권을 학기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사생들이 많다. 남아도는 식권을 환불하지도, 다음 학기에 사용도 못하게 되면서 사생들의 근심은 깊어져만 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기숙사 의무식 제도 폐지’이다. 공정거래법상 강제행위에 해당하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다른 기관도 아닌 학생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목표로 하는 학교가 해서는 안될 일이다. 명지대학교 100명의 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권판매 방식에 동의하는가?’라는 설문조사의 결과 동의하는 32%의 학생들, 동의하지 않는 68%의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의무식과 선택식을 혼용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강남대학교 기숙사에서는 의무식과 판매식(선택식) 중 선택하여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⁴⁴⁾ 우리 명지대학교도 입사신청을 할 때 사생들이 0식, 20식, 40식 중 고를 수 있도록

43) 명지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입사하기”, <http://dorm.mju.ac.kr/>, (2017.5.27.최종검색).

44) 강남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심전관’, <https://shimjeon.kangnam.ac.kr/main/index.php>, (최종검색 2017.5.19.)

선택권을 주어야 하고, 0식을 신청했지만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고 싶은 사생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식권판매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기숙사가 학생들에게 강제행위를 행해선 안된다. 민간업체(외부 업자)와의 거래로 적정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⁴⁵⁾ 학교의 해명은 실망스럽다.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함으로,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의무식과 선택식 혼용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숙사 정기적 설문조사 실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학교 측(사생자치회)은 이러한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들에 있어 자유로운 소통이 필요하다. 현재 기숙사 홈페이지(<http://dorm.mju.ac.kr/>)에는 ‘공지사항과 자주하는 Q&A, 질문있어요, 고쳐주세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 이것을 통해 사생들은 불편한 점과 문제점들을 올리고 사생자치회에선 이에 대한 답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한정적이고 사생들의 모든 의견을 들어보고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숙사는 정기적으로 기숙사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이면서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정기 설문조사는 학교에서 시행하고있는 ‘강의 개선조사’, ‘강의평가’등과 같이 한 학기에 한번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정기 조사를 의무화 하여 기간 안에 사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기간을 넘겨 못할 시 별점 1점의 불이익 제도를 마련하여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기숙사 운영에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정기적인 기간은 한 학기에 한번이 적절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학기 초에 실시할 경우 기숙사에서 생활해 보지 않은 학생들은 불편하거나 의견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학기말 종강 전에 모든 생활은 마친 후 평가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다음 학기 기숙사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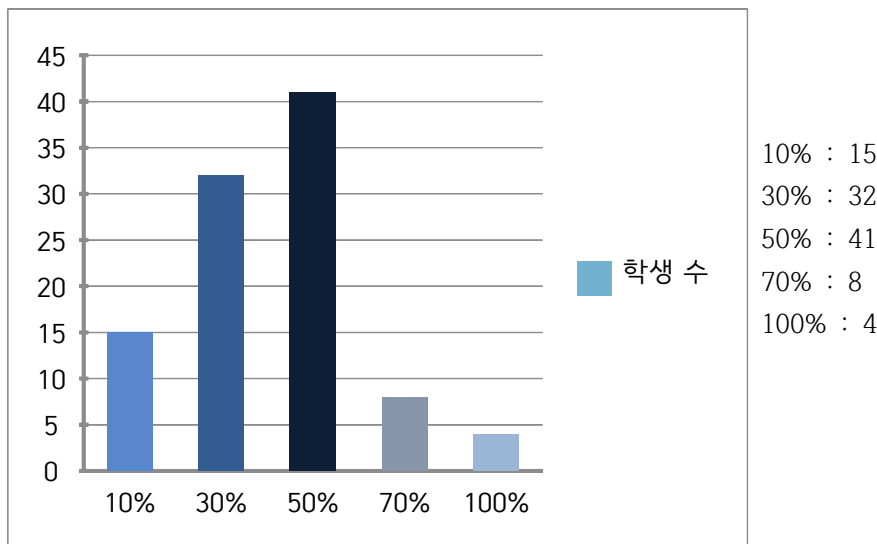
이렇게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학교간의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교환되면, 사생들의 의견을 학교에선 최대한 수용하여 개선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숙사의 운영에서도, 기숙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현재 대학에서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또는 거주지와 학교의 거리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다. 기숙사의 유용하고 편리한 점이 있지만 생활 하면서 그 안에는 불편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학교는 적극적으로 묻고,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있어 가장 최적화 된 상태를 만들어 주기위해 노력해야하며, 학생들 또한 학교 시설인 기숙사를 깨끗하게 이용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45) 박정호, “기숙사 식권 구입 의무화, 골병드는 대학생”, <http://kafkago.tistory.com/515>.(최종검색 2017.5.19.)

이글에서는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II장에서는 기숙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문제점들에는 선발기준의 불평등 문제, 낙후된 시설의 문제, 기숙사 내의 보안문제, 필수로 구매해야하는 식권문제 등이 있었다. 이어 III장에서는 이러한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안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3] 기숙사 최종 만족도 조사⁴⁶⁾

마지막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만족도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조사하였다. [그림13]와 같이 무려 41명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대한 절반정도의 만족감을 갖고 있었다. 또한 기숙사에 만족하는 학생들 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숙사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학생들의 의견수용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막연하게 생각 했던 기숙사운영의 문제점들을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심도 있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글을 쓰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가장 좋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점이 가장 의미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조금 더 신뢰도 있는 인원수와 자료로 글에 쓰이지 못한 점이 아쉽다. 평소 기숙사를 사용하며 불편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가며 해결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학교에서도 작지만 학생들을 위한 방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작지만 이렇게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이 있다면 자랑스러운 명지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고,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46) 명지대학교 기숙사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에서의 '최종 기숙사 운영 만족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다.

[참고 문헌]

- An architectural Record Book, Apartment and Dormitories, McGraw Hill Book Co.
- 정훈·강민호·주석중, 「대학 기숙사의 시설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 12권 제5호, 한국교육시설학회, 2005
- 유병진, 「명지대학교2017년도대학생활성공가이드」, 명지대방목기초교육대학, 2017
- 명지대학교 기숙생들의 기숙사 운영 만족도 설문지
- 강남대생활관, “기숙사선발기준”, <https://shimjeon.kangnam.ac.kr/main/index.php>, (최종검색일2017.5.19.)
- 가천대생활관, “기숙사선발기준, 수용인원”, <http://www.dasomkwan.net> (최종검색 2017.5.19.)
- 가톨릭대기숙사, “기숙사선발기준, 수용인원”, <http://www.catholic.ac.kr/~i-house/>, (최종검색 2017.5.19.)
- 구메진, “기숙사 통금,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문제로다”, <http://goham20.tistory.com/2891>, (최종검색 2017.5.19.)
- 단국대생활관, “기숙사선발기준, 수용인원”, <http://domi.dankook.ac.kr/?intro=1>, (최종검색일2017. 5.19.)
- 대학교육연구소, “국립대 기숙사 3곳 중 1곳 여전히 1일 3식 의무”, <http://khei-khei.tistory.com/981>, (최종검색 2017.5.19.)
- “명지대학교기숙사의목적-기숙사의목적이제대로실현되고있는가?”, 명지대 자연캠퍼스 생활관, <http://dorm.mju.ac.kr/>, (최종검색일2017. 5.19.)
- 명지대학교 생활관 관리자, “돈 납부와 식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 <http://kafkago.tistory.com/515>, (최종검색 2017.5.19.)
- 민소영, “팬티·양말에 치약까지...대학가 좀도둑 ‘활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106000154>, (최종검색 2017.5.19.)
- 박정호, “기숙사 식권 구입 의무화, 골병드는 대학생”, <http://kafkago.tistory.com/515>, (최종검색 2017.5.19.)
- 송담대미래관, “기숙사선발기준, 수용인원”, <http://ate.ysc.ac.kr/dorm/>, (최종검색일2017. 5.19.)
- 신의기 외 5명,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신재웅, “휴기 든 괴한 중앙대 안성캠퍼스 여학생 기숙사 침입”,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06506_21408.html, (최종검색 2017.5.19.)
- 아주대생활관, “기숙사선발기준,수용인원”, <http://dorm.ajou.ac.kr/dorm/>,

(최종검색일2017.5.19.)

-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asc.ac.kr/bbs/skin/gal/bor1/bbs_view.jsp?b_idx=14723&board_id=main_11

(최종검색 2017.5.19.)

- 윤수희·김태현, “‘대학 기숙사 통금’ 꼭 필요한가요? 일부 대학 폐지 추진”,

[http://news1.kr/articles/?2661890,\(2017.5.27.최종검색\).](http://news1.kr/articles/?2661890,(2017.5.27.최종검색).)

- 위덕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uu.ac.kr/bbs/board.php?bo_table=05_02_01&wr_id=306

(최종검색 2017.5.19.)

- 제3생활관(3,4,5동) 리모델링및이로인한생활관비인상,

명지대자연캠퍼스생활관<http://dorm.mju.ac.kr/>(최종검색일2017. 5.19.)

- 최승태, “방법창 설치가 성범죄 막는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02443>

(최종검색 2017.5.19.)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ue2016/?fref=ts>

(최종검색 2017.5.19.)

- 호산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osan.ac.kr/front/board/view.php?code=notice&sch_string=%EA%B8%B0%EC%88%99%EC%82%AC&no=6000.

(최종검색 2017.5.19.)

기숙사 운영 만족도 설문 조사

이는 명지대학교 생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명지대학교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주제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쓰이는 자료이며, 익명이므로 솔직하게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기숙사 시설에 만족하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1-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_____)

2) 기숙사 선발 기준에 만족하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2-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① 성적점수 ② 거리점수 ③ 기타 (_____)

2-2) 위에서 선택한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_____)

3) 기숙사의 정원수에 만족하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3-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_____)

4) 기숙사 보안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4-1)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5) 기숙사비용에 식권비가 포함되고 있는 것에 찬성하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5-1)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6) 위 질문 이외에 기숙사의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7) 기숙사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선택하시오.

- ① 10% ② 30% ③ 50% ④ 70% ⑤ 100%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